"개울길에 피어난 웃음" 순천만국가정원 '아이-정원' 인기

모래놀이부터 자연 향기 체험까지… 아이와 함께 즐긴 정원 속 특별한 하루

순천시는 지난 15일 순천만국가정원 개울길광장에서 '초록 속 웃음이 자라는 아이-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1,000여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초록 속 웃음이 자라는 아이-정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뛰놀며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치유 정원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개울길광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친화형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놀거리·즐길거리·볼거리가 어우러진 정원 속 생태놀이터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행사장에서는 △모래정원 △IP블록존 △그린우드 슈팅체험 △RC카 정원레이싱 등 활동 중심의 놀이 콘텐츠를 비롯해, △초록목장 아이스크림 만들기 △초록 솜사탕 만들기 △아이스(ICE)가든 미션 △향기솔솔 숲속체험(자연 비누·향수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개울길 앞 잔디광장에서는 피아노와 플루트가 어우러진 '꿀잠콘서트'가 열려, 자연 속에서 휴식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도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맨발로 개울길에 들어가 모래를 만지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이-정원'은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친화형 문화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정원이 전 세대의 치유와 성장을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아이-정원'을 가을 시즌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7~8월에는 야간 정원에서 한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정원×한옥 밤마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숏폼 영상을 타고 떠나는 감성 화순 여행

MZ세대 감성 가득! 화순 홍보 숏폼 영상, SNS 타고 전국으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주최한 '나만의 픽! 화순 여행코스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MZ 세대의 시선으로 화순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낸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SNS를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71개 팀(명)이 응모해 뜨거운 열기를 동반했다.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8편 등 총 1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출품작 중 직접 작사·작곡한 화순 홍보곡을 배경으로 화순의 주요 관광지를 감성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대상을 차지했다. 창작 음악과 영상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동 최우수상에는 초성 'ㅎㅅ(화순)'을 활용해 다채로운 테마로 화순의 관광지를 소개한 기발한 영상과, 전문가적인 감각으로 화순의 고요한 풍경을 섬세하게 표현한 영상이 각각 선정됐다. 두 작품 모두 화순의 다양한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홍보 콘텐츠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화순을 젊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작은 향후 화순 관광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은 화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관광화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 '운림 수국의 밤' 관심 집중

6월 18일부터 운림산림욕장 내 '수국 공원 야간 개장'

진도군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림산림욕장 내 수국 공원을 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8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운림 수국의 밤'을 주제로 퓨전국악과 통기타라이브가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도읍 공설운동장에서 사천리로 이어지는 임도의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운림산림욕장 내 약 3헥타르(9천 평)의 면적에 2만 본의 수국을 심어 현재 아름답게 개화 중이며, 야간 개장 기간에는 조명을 밝혀 방문객들이 오후 10시까지 수국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진도군은 수국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현장 안내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국 공원은 진도

의 수국을 산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이자 무더운 여름밤에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광군, 영광형 햇빛·바람연금 군민참여 제도 구체화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군은 7월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오는 30일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과업에 포함된 시행규칙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하여 발전사업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영광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불편을 없애는 한 줄 생각, 내가 직접 바꿔 봐요!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실현가능성·참신성·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4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3명(각 20만원) ▲노력상 4명(각 10만원) 등 총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무안군 제공

보성군,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사업 선정 국비 1억 5천만 원 확보

노인 일자리·지역 돌봄 복지 모델 '녹차골 청춘식당'

보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총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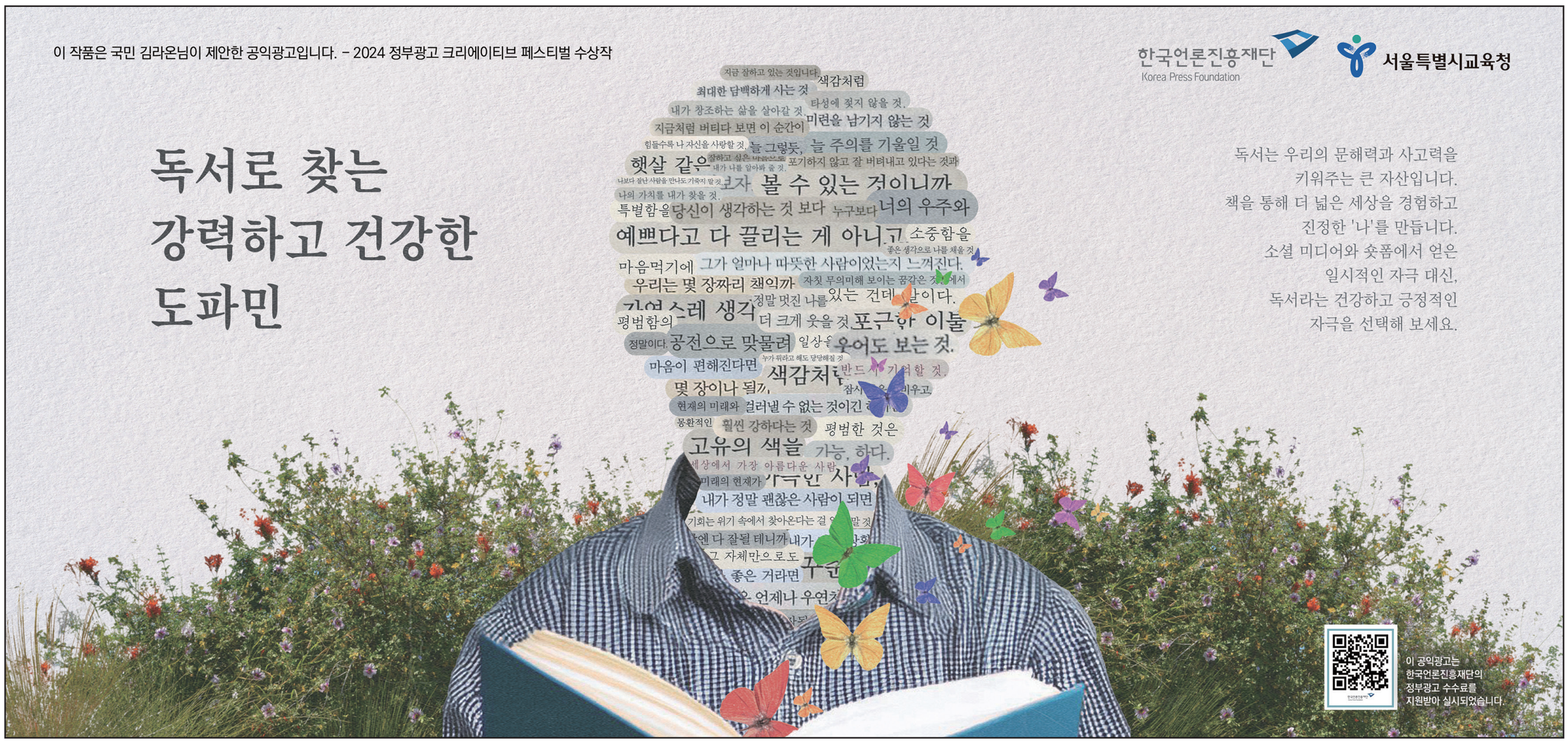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고령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보성군은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와 협력해 보성읍 노인회관 1층에 지역 복지형 식당인 '녹차골 청춘식당' 조성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녹차골 청춘식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취약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연대감 형성과 이웃 간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며, 복지 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는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차골 청춘식당'이 단순한 식당을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